

코로나 2년...돈지갑 닫았다

한국은행 광주·전남 소비행태 변화 분석

교육·음식·숙박·의류 등 감소 두드러져

지역 거주자 역외 소비비율은 크게 증가

“소비진작 대책 강화·업종 지원책 지속을”

코로나19 2년차를 맞은 광주·전남지역 소비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 서비스 대표 업종인 교육, 음식점, 숙박 등에서 소비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등으로 지역을 빠져나가는 역외소비는 늘어났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이종현 과장)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광주전남지역 소비행태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민간소비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 전년 대비 해 광주(-6.0%)와 전남(-5.1%) 모두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3개년(2017-2019년) 평균수치를 코로나 전으로, 2020년을 코로나 이후로 구분해 분석했다.

정부의 방역조치 영향으로 교육,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의 서비스와 의료 등 준내구재가 소비부진을 주도했다.

코로나19 전후 광주지역 교육 목적의 소비지출은 1.9%에서 -19.2%로 급감했고, 음식·숙박은 5.4%에서 -14.1%로 급감했다. 전남지역 교육 소비지출은 0.9%에서 -19.4%로, 음식·숙박은 5.1%에서 -12.3%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교육 소비 비중은 광주 5.4%에서 4.5%로, 전남은 3.2%에서 2.7%로 낮아졌다. 학원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 많고 학령인구 비중이 높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식·숙박 목적 소비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지 행사가 다수 취소되고 영업제한 조치의 영향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대외활동을 기피하면서 의료, 오락·문화 등 외부활동과 관련한 소비도 큰 폭 감소했다.

광주지역 의류 소비 증가율은 코로나19 전 1.9%에서 -18.3%, 오락·문화는 6.3%에서 -19.8%로 급감했다. 전남 의류 소비 증가율은 코로나19 전 1.4%에서 코로나19 후 -16.4%로 급감했다.

의류 소비 비중은 광주 7.8%에서 6.5%로, 전남은 6.5%에서 5.6%로 낮아졌다. 오락·문화 소비 비중은 광주 9.7%에서 8.3%로 전남은 9.2%에서 8.7%로 낮아졌다. 다만 골프장은 2020년에 이어 호황을 지속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및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식음료, 가구·가전 등 홈코노미 관련 소비가 증가했다. 식음료 소비 증가율은 광주 4.2%에서 7.8%, 전남은 1.6%에서 5.6%로 증가했다.

가구·가전 소비 증가율은 광주 11.4%에서 13.1%, 전남은 6.7%에서 11.1%로 높아졌다. 식음료 소비 비중

은 광주는 11.1%에서 12.7%, 전남은 13.5%에서 14.4%로 높아졌다. 가구·가전 소비 비중은 광주 3.2%에서 4.0%, 전남은 3.1%에서 3.7%로 증가했다.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도 증가했다. 광주·전남의 온라인 소비는 2020년에 큰 폭 증가세가 확대됐다가 2021년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는 모양새다.

유통업 증가율에서 온라인 소비 증가가 차지하는 비율(7여율)이 2018년에는 광주와 전남 모두 58%였으나 2020년에는 각각 123%, 130%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오프라인 소비는 2020년에 백화점이 큰 폭 감소하고 편의점도 증가율이 둔화했으나 2021년 들어 백화점은 큰 폭 증가로 전환했으나 할인점 등은 전년과 비슷한 흐름을 유지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 거주자의 타 지역 소비 비율(역외소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역외소비는 광주 61.1%, 전남 60.5%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대비 각각 6.1%p, 3.0%p 증가한 것으로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소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의 소비가 크게 늘었다. 이는 온라인 소비의 분사 소재지인 수도권으로 집계된 데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종현 과장은 “향후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 소비습관 변화 등에 따라 소비 회복이 더디질 경우 지역경제의 내수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지역민의 소득 여건 개선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 부진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음식·숙박업 등)과 계층(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캐리어에어컨은 가습 기능과 헬스케어 기술 강화 및 컬러 가전 트렌드를 반영한 2022년형 New ‘에어로 18단 에어컨’ 컬러 에디션 라인을 출시했다.

캐리어에어컨, ‘에어로 18단’ 컬러 에디션 출시

공기청정·가습 모듈 적용 사계절 사용

캐리어에어컨(회장 강성희)은 가습 기능과 헬스케어 기술 강화 및 컬러 가전 트렌드를 반영한 2022년형 New ‘에어로 18단 에어컨’ 컬러 에디션 라인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2022년형 New 에어로 18단 에어컨은 냉난방은 물론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공기 청정과 가습 등 헬스케어 기능을 강화해 사계절 사용 가능하다. 가습모듈의 UV살균과 가습경로의 고

온스팀 살균은 물론 자동건조, 사용 후 남은 물을 자동으로 배수하는 4단계 정결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초음파 가습기의 물 오염과 곰팡이로 인한 세균 번식 및 방출 문제를 해결했다.

4중 안전장치를 적용해 제품 안전성을 확보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가습 모듈의 물보충시 전면버튼 조작으로 전면 패널과 함께 물통이 자동으로 기울어져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공기 관리 솔루션으로 특화된 New 에어로 18단 에어컨은 ▲공기청정 3단계 ▲바이러스 케어 3단계 ▲실내 환경 관리 3단계로 이뤄진 트리플(3.3.3) 에어케어 시스템이 적용됐다.

캐리어에어컨 관계자는 “2022년형 New 에어로 18단 에어컨은 기존 여름에만 사용하던 냉방기가 아닌 사계절 내내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혁신적인 제품이다”며 “다채로운 색상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노동이사제 도입

광주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최초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탁용석)은 광주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노동 이사제를 도입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5일 노동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후보모집을 위한 계획을 확정했으며, 선거공고를 통해 노동이사 선출 절차에 착수했다.

노동이사제는 2017년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광주도시공사, 환경공단, 도시철도공사 1차로 추진된 바 있으며, 지난해 6

월 노동이사 조례 개정에 따라 의무대상 확대됐다.

이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노사협의회, 전 직원 간담회, 정례 교육 등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및 운영 등에 대해 충분한 노사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노동이사 선출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 노동이사 선출 선거관리규칙 제정 등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완료했으며, 내달 18일 투표로 노동이사 후보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입후보 자격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만 입후보할 수 있으며, 최종 노동이사로 선출되면 3년 임기로 1년

단위 연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른 노동이사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 국전력공사 36곳,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총 131개 공공기관에 한해 적용된다.

탁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노동이사 선출을 통한 소속 노동자의 경영 참여로 경영 투명성과 상호 신뢰를 높이고, 노사 상생과 협력 촉진을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노사 화합으로 책임경영을 함께 주도해 시민과 기업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수출기업 RCEP 활용 설명회

광주본부세관-광주상의, 27일 온라인으로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과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오는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의 발효를 앞두고 27일 오후 2시부터 지역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RCEP 활용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본부세관과 광주상

의가 공동으로 주관해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온라인(ZOOM)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Mega-FTA다. 특히 일본과 체결되는 첫 FTA라는 점에서 일

본으로 수출하는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RCEP 개요 및 현황, 중소기업 RCEP 활용 방법,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설명회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RCEP 활용 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는 광주상공회의소로 2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연수 기자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 축소

7개 기관 1,381명...전년대비 211명 줄어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올해 정규직 채용 계획 규모가 지난해 대비 전반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의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ALIO) 등에 따르면 올해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7개 기관이 총 1,381명을 채용할 예

정이다. 지난해 8개 기관이 1,592명을 채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211명(-13.3%) 축소됐다. 규모는 축소됐지만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지난해 27%에서 올해는 30%까지 상승했다.

올해 채용 계획이 확정된 기관은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KDN, 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7곳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력거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은 채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내 최대 공공기업 한국전력은 일반 정규직 729명, 고졸 113명 등 84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채용계획 1,100명 대비 258명(-23.5%) 감소했다. 한전KPS는 지난해 대비 85명 늘어난 315명을 채용한다.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는 오는 28일까지 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황애란 기자

hotelthestar.com

HOTEL THE STAR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최상의 편안함과 서비스로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함께하세요

전 객실 에이스 침대 맞춤 제작 최고급 침구 사용

스탠다드 / 디럭스 투윈 / 프리미엄 디럭스 / 코너 스위트 / 프리미엄 스위트

호텔더스타 본관

호텔더스타 웨딩컨벤션

HOTEL THE STAR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74 TEL. (061) 350-7900

웨딩 / 돌잔치 / 각종모임 / 기념행사 예약문의 010-3627-5003